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

“사람사랑” 2호에서 6호까지는 사랑방의 초기 문제의식을 담았던 글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그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저희의 초기 문제의식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지금의 사랑방의 사업과 역할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2호에서는 먼저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는 글의 서두에 해당되는 서준식 대표의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①

* 감옥에서 생각했던 것들.

나의 첫번째 감옥살이는 24살부터 41살까지, 17년동안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감옥 속에서 30살을 넘어서야 세상과 인간이란 결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가슴에 침투해왔고, 그 무렵부터 나는 구체적인 실존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축적이 없이 사회변혁 이론에 경도해온 자신을 처절하도록 두려워 했다. 나는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길을 갈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일’이 뭔지는 몰랐지만 인권운동만은 결단코 아니었다. 인권운동이란 내가 생각하기엔 유럽인권이론의 틀을 가지고 1세계의 도움을 받아가며 종교인들이나 하는 깨끗하기 짝이 없는 운동이기가 심상이었고, 가치중립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매몰됨으로써 사회의 질적 문제를 결과적으로 은폐하는 치명적인 역기능을 가진 운동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운명이란 때로 알곳은 것이어서, 그러했던 내가 1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 미처 장기수 장짜도 모르던 세상을 향해 “장기수, 장기수”하고 외친 것이 발미가 되어 어느새 정신없이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나의 두번째 감옥행은 법관 나오리에

의하면 보안관찰법을 어겼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저놈의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을 두고 방자하게도 검찰이야말로 범죄자라는 주장의 선봉에 섰기 때문이었다. 감시카메라까지 달린 독방에서 나는 솔직히 한심했다. 검찰이 백을 흑이라고 우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앉아서 당하는 못난 우리의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감옥에 가면 누구나 정신 차리게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두번째 감옥에서 6개월동안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거의 인권운동만 생각했다. 그전 감옥에서 “결단코 아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인권운동을.

소위 폭력배 두목급들과 사귀면서 그들에게도 분명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2시간 면회길에다가 1시간 대기시간에다가 5분 면회를 하고 훌쩍거리고 돌아서는 그 많은 부인들 모습을 보면서 이 면회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을 생각했고, 책 검열문제를 전국에서 소송화시키는 일대 캠페인을 생각했고, 사소한 일로 징벌방에서 두달간이나 짐승처럼 똥똥 묶여 지내는 잡범들의 인권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못난 우리 인권운동은 해결은커녕 손도 못대고 있다.

6개월간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결론은 “못난 우리, 못난 인권운동, 변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였다.

*다음호에 계속해서 ‘한국인권운동의 변화의 조건’, ‘전문화를 위한 고민과 구상’이 이어집니다.

사업보고

(4월 둘째주~5월 첫째주)

□ 조직사업 □

지난 4월 12일 이후 운영위원, 자문위원이 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위원 - 김형태 변호사

자문위원 - 인재근(서울민주시민연합 의장), 임호(변호사), 정동희(교수, 방통대 경영학과), 권광식(교수, 방통대 경제학과)

운영, 자문위원 전원과 후원인들께는 사랑방통신 1호와 <인권하루소식> 합본 3호(무료기증)를 발송하였습니다.

□ 운영위원회 □

4월 12일, 7차 운영위원회가, 27일, 8차 운영위원회 및 월례모임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강경선 부위원장의 주재로 2주에 한번 사랑방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월례모임을 통해 사무국전원과 운영위원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첫모임을 가진 이래로 운영위원회는 사랑방 규약검토작성, 대표·운영위원장 및 임원선임, 자문위원 구성, 사업계획 제안 및 인준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시면 사무국이나 백승헌 운영위 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

연대회의 참가단체가 21개로 늘어났으며, 유엔에 제출할 민간보고서의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동권리조약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조직인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조정관인 Laura Theytaz-Bergman은 한국의 민간보고서 사업이 여러나라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감과 함께 10월 16-20일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회의에 참석할 민간대표 1인의 참가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5월 어린이달을 맞아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과 '연대회의'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획사업의 하나로 중앙일보사와 함께 공동기획시리즈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7면에 일주일에 2회, 총 7회의 아동권리관련 기사가 연재됩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유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대한 만화홍보물 2만부를 제작하여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4호 발간예정 □

<인권하루소식>이 5월 11일(목)로 400호 발행을 맞이하여 5월말까지 합본 4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합본 4호에서는 3호까지 실렸던 머리글 대신 책이용안내를 실을 예정이며, 중요사건관련 자료모음이 부록으로 실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지방통신원 마련 □

인권하루소식이 수도권에만 집중된 취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통신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경기도, 인천, 부산등을 포함하여 13개 지역의 통신원이 확보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영문판 발간 기획 □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공하는 정보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한국인권상황의 결정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하루소식> 영문판이 기획되었습니다. 올 9월 하루소식 발간 2주년에 맞추어 별 목표로 현재 기초포맷을 작성중이며, 제작인력확보와 배포망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민간보고서 작성사업 □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8개 단체가 공동작성한 민간보고서가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자리에서 사랑방을 대표하여 박노현 운영위원이 '민간보고서 의 작성취지와 경과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인권강좌 □

제 14차 인권강좌-형법 I, II가 김순태 국

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을 모시고
 진행되었고, 제 16차 강좌에서는 제 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다녀온 이성훈씨의 활동
 보고를 통해 인권위원회의 주요쟁점을 다루
 었습니다. 5월에는 자문위원 차병직 변호사
 님의 형사소송법 강의가 2회에 걸쳐 진행됩
 니다.

□ 인권교육 □

* 5월 4일 성공회 대학 개설과목인 [민간단
 체론(NGO)] 강좌 중 '인권과 국제인권단
 체, 세계인권대회' 부분을 노태훈 사랑방 연
 대실장이 강의하였습니다.

* 서울법대학생회에서 개최하는 '진보법을
 학교' 중 6월 2일 '인권운동' 강좌 부분을
 류은숙 사랑방 인권교육실장이 맡게 되었습
 니다.

* 전국연합인권위와 공동으로 지방순회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알기쉬운 인권교재시리즈의 첫번째 주제
 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handbook을 5월 말 발간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연대사업 □

4월 28일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
 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에 공식 참여
 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1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네팔인 13명의 농성을 계기로 만
 들어졌고, 이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실태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
 습니다.

□ 행정관련 재소자 설문 분석작업 □

운영위원 박찬운 변호사님의 의뢰를 받아
 행정관련 재소자 설문 분석작업을 마쳤습니
 다.

□ 자문위원 김거성 목사, 네팔 카트만두에 서 열린 '인권자료센터'교육집기 □

네팔 카트만두 소재의 HURIDOC에서 4월 17
 일부터 10일간 열린 인권자료데이터 분석
 교육프로그램에 인권자료실이 초청받음에
 따라 자문위원 김거성목사가 참가하였습니
 다. 후속사업으로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위
 한 훈련프로그램실시와 EVSYS한글화 작업'
 이 제안되었습니다.

□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고정출연 □

5월11일부터 박래군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이
 기독교방송 시사자키에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출연하여 주간인권동향을 소개합니다.

재정보고

4월 (1~30일) 결산

<수입>

3월 잔액	-157,914
하루소식구독료	2,554,070
후원금	420,000
(서경석/김순태/백승현-자료실전용회선 설치금기부)	
서대표격려금	463,000
운영, 자문위원회비	2,090,000
사업수익	667,600
(행형관련설문조사분석작업,기타자료대 여)	
하루소식합본호판매	1,289,750
기타	180,000

계 7,506,506 원

<지출>

전화, 팩스송신비	1,641,794
사무비	185,220
자료구입	273,219
우편발송	599,980
식대	227,540
인권강좌 강사료	150,000
취재비	88,750
사업비(사회권조약보고서사업)	100,000
잡비	97,800
활동비	3,200,000
집세 및 세금	367,055

계 6,931,358 원

잔액

575,148 원

* <인권하루소식>합본 3호 인쇄비 16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 4월분 회비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자료소식

어린이달을 맞아 <아동인권>관련 일문·영문자료목록을 2차례에 걸쳐 실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인권자료실로 연락하시어 대출 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生徒とのかかわりをどうつくるか(학생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高生研(全國高校生活指導研究協議會)編(明治圖書)/197/B/1989년/Ja/단행본

30년동안 고교생의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와 연구를 해온 高生協에서 학생지도의 실재를 리포트 형식으로 기록하고, 생활지도지침서로 펴낸 것. 일선의 생활지도 교사들에게 모범이 될 중요한 사례가 많다.

● 兒童の權利條約(아동의 권리조약)

下村哲夫 編/290/B/1994/Ja

아동의 권리조약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 각 부문 공동집필 형태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 아동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권리주체로서 아동이 지니는 지위와 아동의 권리조약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わたしたちの獨立宣言(우리들의 독립선언)

喜多明人 著/204/B/1992/Ja

‘교육문제, 세계의 아동, 권리의 의미, 자신의 인권은 자신이 지킨다, 지구인으로 살아간다’등 아동이 읽으면서 스스로 권리를 찾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쉽고 분명하게 서술하였다.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책이다.

● 生徒人權手帳-[生徒手帳]はもういらない(학생인권수첩 - 학생수첩은 이제 필요 없다)

平野裕二 等 編著/308/B/1990/Ja

기본적 인권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유형화했다. ‘자신의 것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 갈 권리와 가지 않을 권리, 마음의 자유를 지킬 권리, 성과 인권에 관한 권리’ 등

과 함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학생들의 투쟁기록을 담았다.

● 體罰と兒童の人權(체벌과 아동의 인권)

村上義雄 等, 編著/人權ライブラリ /262/B/1986/Ja

아동 체벌을 중심으로 다룬 아동인권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무감각과 무시가 6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 과정의 후유증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에서 씌여진 기록들이다.

● 世紀をひらく兒童の權利保障 - 兒童扶養手當制度を考える(세기를 넓히는 아동의 권리보장 - 아동부양수당제도를 생각한다)

「世紀をひらく兒童の權利保障」を出版する會/379/B/1985/Ja

‘모자가정의 현실, 이혼과 아동, 아동의 인권 - 생존권과 사회보장’이 주요내용이다.

● 人權保育とはなにか - その考え方と具體化への提言(인권보육이란 무엇인가 - 그 생각과 구체화에 대한 제언)

玉置哲淳 著/175/B/1991.8./Ja

특히 영유아의 인권을 다룬 책. 인권을 가르치는 보육의 방향과 원칙,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반차별 이미지를 가르친다. 그 밖에 놀이를 통한 인권보육, 차별받는 아동의 보육권 보장의 문제, 인권의 입장에 선 보육자 집단의 확립, 인권보육 지도계획 등이 있다.

● じょうふな頭とかしこい體になるために(건강한 머리와 빈틈없는-현명한 몸이 되기 위해)

五味太郎 著/118/B/1991/Ja

현대 아동의 의문, 고뇌, 희망 등을 조사한 몇몇 데이터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엮은 책이다.

● チルドレンズ・ライツ - いま世界の子どもたちは(아동의 권리 - 지금 세계아동들은)

チルドレンズ・ライツ刊行委員會編/169/B/1989.11./Ja

세계 아동이 처해 있는 조건과 상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소논문을 모은 책이다. 국제 인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자와 전문가들이 집필하였다.